

장백산천지

제 205 호

2012 년 1 월 27 일

금요일

세계각지 파룬궁학원들 사존님께 새해인사를 드렸다

세계각지 파룬궁학원들 2012 년 새해를 맞아 사존님께 축하, 시가, 년하장 등을 명혜망에 보내어 자비로운 리홍지사부님께 새해의 인사와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장춘 파룬궁학원 드림.



연변 파룬궁학원 드림.



홍콩 파룬궁학원 드림.



대만 파룬궁학원 드림.



한국 파룬궁학원 드림.



일본 파룬궁학원 드림.



러시아 파룬궁학원 드림.



프랑스 파룬궁학원 드림.



미국 파룬궁학원 드림.



캐나다 파룬궁학원 드림.



브라질 파룬궁학원 드림.

우크라이나국가텔레비전에서 썬싼런미술전람을 보도

지난 1 월 10 일, 우크라이나 수도 “감마” 미술청에서 썬싼런미술전람회를 열었다. 예술가들은 그림을 통하여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신심건강과 정신승화를 얻은 수련의 아름다운 경지와 지금 중국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를 표현했으며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진리와 파룬궁수련자들이 “반박해”의 견정불굴의 정신을 전달했다.

10 일 저녁, 우크라이나국가텔레비전방송국 제 1 프로에서 전세기말에 파룬따파는 송고한 내포로 전세계에 신속히 전파되어 파룬따파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의 인수를 초과하게 되자 중공의 괴수 강택민은 박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국가텔레비전방송국 제 5 프로에서 예술가들은 미술그림의 형식으로 중공이 잔인하게 파룬따파수련자들에게 혹형을 감행한 것을 표현했고 선악의 거름에서 사람들의 양지를 고했었다고 보도했다.



제 1 프로에서 미술전람을 보도

오주 국경대시위행진에서 이채를 돌군 파룬궁단체

지난 1 월 26 일, 오스트레일리아국경절 대시위에 요청을 받고 참가한 파룬따파 천국악단, 선녀팀, 공법표연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박해를 받아 세상 뜬 심양파룬궁학원 리상영

심양시파룬궁학원 리상영은 2000 년 12 월 말에 10 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갖은 혹형과 박해를 받아 2011 년 12 월 30 일에 세상을 떠났다.



박해를 받아 피골이 상접한 리상영



시장을 소란시킨 도문시 경찰들

지난 1 월 3 일 오후 2 시, 도문시파룬궁학원 송려걸(宋麗杰)은 파룬궁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한 녀인에게 고발된후 도문시공안국 경찰들에게 추적당해 한 백화점에서 랍치되었다. 송려걸은 《너희들은 살인, 강탈, 탐오, 부패에 대해 관계하지 않고 좋은 사람만 붙잡는구나.》라고 말하자 경찰들은 달려들어 그의 귀뺨을 런속 치고 발로 차서 땅에 쓰러뜨렸다. 경찰들은 송려걸을 랍치한후, 백화점의 경리, 종업원, 고객들을 공안국에 붙잡아 가두고 이튿날에 석방했다. 그날 저녁 8 시에 경찰들은 송려걸의 어머니 장계영을 랍치했다. 지금 장계영은 도문시안산간수소에 갇혀있고 송려걸은 행방불명이다.

중국헌법에는 공민은 신앙,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써여져있다. 파룬궁학원들이 썬싼런을 신앙하고 진상자료를 배포하는것은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이다. 파룬따파는 이미 전세계 100 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파룬따파의 신앙에 대해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는것은 중공뿐이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중공의 멸망은 력사의 필연적이다.

파룬궁을 탄압하는 모든 경찰들은 즉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여 천멸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자.

